

CSLV

CASA LIVING

까사리빙

THE DECENT FOR DESIGN LIFE



진화하는 디자인
**Milano
Design
Week
2024**

유니크한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북 라운지 8곳

아이레니 코시가 채운 아카이브
이야기를 수집하는 집

여름 경주에서 즐기는 휴식

2024 JUNE www.casa.co.kr
₩ 9,900

ISSN 2982-592X
9 772982 592002



Zara Home

어떤 공간과 시간에서도 조화롭게

자라홈은 2022년부터 벨기에의 세계적인 건축가 빈센트 반 두이센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홈 컬렉션을 선보였다. 건축과 가구, 두 분야의 만남은 새롭고 독특하면서도 조화롭다. 자라홈과 반 두이센이 함께한 컬렉션, 반 두이센의 철학을 살펴보자.



©Zab Daenen



©Zara Home

©Zara Home

'자라홈+by 빈센트 반 두이센'의 첫 번째 컬렉션은 리빙룸, 두 번째는 다이닝룸에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컬렉션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공간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죽과 나무로 제작한 의자부터 황동 액세서리, 조각 오브제까지. 다양한 아이템에 역동적이면서도 풍부한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미감을 강화했다. 빈센트 반 두이센이 그의 자택 소장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가구와 소품, 자연을 닮은 어시한 컬러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이나 잘 어울리는 유연한 디자인이 이번 컬렉션에서 눈에 띄어볼 점.



©Zara Home

Interview

건축가 빈센트 반 두이센(Vincent Van Duysen)

이전 컬렉션과 다르게 새롭게 탐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는 거실이나 식당과 같은 한 곳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특정 공간 내에서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 사람들이 수집하고 소유하고 싶어 할 만한 아이템에 초점을 맞췄고, 결과적으로 세련되면서도 명료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모든 요소가 상호 작용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무로 제작한 가구들이 눈에 띈다. 특히 나뭇결을 살린 가구를 디자인한 이유가 있는지?

나무라는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소재를 정말 좋아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빛깔을 띠고, 어떤 환경에서든 따뜻함과 촉감을 더해준다. 그래서 자라홈의 첫 번째 컬렉션부터 이번 컬렉션까지 모든 제품에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어디에나 조화롭게 어울리는 가구 디자인을 선보인다. 구상하면서 가장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

자라홈의 고객층이 전 세계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디자인과 건축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식에 대한 나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고객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면?

건축과 디자인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안의 모든 것을 내가 세심하게 큐레이팅한

일종의 총체 예술(Gesamtkunstwerk)로 간주한다. 이는 내 작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라홈과의 작업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소파, 안락의자, 식탁과 같은 큰 가구부터 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를 고객들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컬렉션 중 하나인 체이스 라운지 체어(Lounge O1)는 자택의 가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지점이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영감을 얻는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수년간의 건축,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아카이브를 되짚어보며 가장 강렬한 작품들을 추려냈다. 앤트워프에 있는 자택 VVD II 레지던스가 영감의 출발점이자 큰 원천이 되었다.

독자들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가?

모두 다 훌륭해서 하나를 꼽기 어렵다. 이번 새로운 컬렉션의 제품들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분위기에 조화롭게 매치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자라홈과 함께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렉션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